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격동의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금년은 21세기 한민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석열의 내란선동을 격퇴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된 한해였다.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하늘이 보우하시 단군 이래 가장 뛰어난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을 지도자로 선택하여 미국의 관세협상의 파도를 넘고, 성공적인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세계 문명사의 강대국 이론을 보면, 해당 나라는 자원이 많아야 버틸 수 있고 인구가 많아야 견디며, 영토가 넓어야 오래 살아남고 군사력이 강해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직 한국민은 이 이론과는 정반대이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 나라였으며 오랫동안 주변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였다.

지난 10월 14일 미국 US뉴스가 발표한 '2025'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기술혁신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문화 파급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6위에 오르며 국제적 영향력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의 강대국 6위 진입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상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기술혁신과 군사력은 미래 강대국 경쟁의 핵심요소로 한국은 이 두 축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며 민족의 속력 일본이 8위로

기고

박성재

전남도의원



정치와 행정의 언어가 단순히 회의록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쉴 때 우리는 '변화'를 체감한다. 지난 2022년 겨울,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던 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우리가 공유해야 했던 뼈아픈 반성이자, 다시는 소중한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외침은 메아리 없는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다. 발원 이후 전남도 곳곳에서 일어난 '심폐소생술(CPR) 배우기 열풍'은 놀랄고도 가슴 벅찬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을 위해 민·관·경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50% 이상으로 치솟음에도, 국내 목격자 시행률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 어르신들과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언은 곧바로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이론 위주의

취재수첩

광주 청년, 남고 싶다는 신호는 이미 나왔다

송대웅  
산업부 차장



광주 청년 취업을 둘러싼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수도권 진출이 당연한 선택처럼 굳어졌지만, 점차 청년들의 응답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정착하겠다는 의향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가 실시한 청년 취업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3.9%가 “지역 기업에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이 44.0%, “있다”가 30.0%로, 단순한 조

아듀 2025,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상승은 동북아 및 세계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기관에서 강대국 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기술력과 외교력 및 문화력의 5가지 지표로 평가한다.

그러면 강대국의 요소인 5가지 지표를 한국에 대입해 보자. 먼저, 경제력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2위 수준이며, 1인당 GDP는 3만5000달러를 넘어 일본을 추월하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영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면

일본과 영국을 추격했다. 1953년 6.25전쟁 이후 국민 1인당 GDP가 67달러로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살았던 한국이 이제 3만5000달러가 되어 500배 이상 성장한 것을 보면 폭풍 성장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둘째, 군사력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5년 240억 달러로 세계 4위가 예상되며 2026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 같다. 폴란드에 K2전차와 K9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했고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가 수백년 독점하던 무기시장에 한국이 가성비, 납기, 품질, 애프터 서비스를 앞세우며 높은 신뢰점수를 받아 한국무기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에서 어렵게 체코산 중포 무기를 구입해 승리했고, 불과 30년 전만해도 한국은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기적이라 할 만 하다.

셋째, 기술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0%, D램은 거의 독과점 수준이다. 3나노 공정기술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전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의 TSMC

만 보유한 초격차 기술이다. 미국등 전 세계 산업이 돌아 가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을 합치면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AI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적인 자본가들이 700조가 넘는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면 AI 선도국가가 가능하다.

네번째, 외교력 평가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방산과 건설등의 인프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전통적 강대국들이 과거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 협력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섯번째, 문화력은 넷플릭스에서 케데헌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1위를 차지하고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은 전 세계 대중문화의 기준을 바꿔 놓았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 상위 10개중 4개가 한국 콘텐츠이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뮤직 비디오 상위 20개중 7개가 케이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로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K방산무기로 국제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시절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전 세계에 영국문화를 전파하며 세계를 지배했듯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류 문화를 파급시키며 21세기를 선도하고 있다. 격동의 2025년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조용히 확실하게 세계가 열광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4분의 기적' 준비 전남,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다

안전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개편했다.

모든 학생이 매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교직원 연수도 강화했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이 누군가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 것은 교육이 실현할 수 있는 숭고한 가치다.

변화의 바람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깊숙한 곳까지 불어닥쳤다. 전남소방본부 중심으로 전개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본 의원이 우려했던 의료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119안전센터와 거리가 먼 도서·산간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소방대원들이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가슴 압박법을 가르쳤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어르신들의 손이 마네킹의 가슴을 힘껏 압박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은 생명 존중에는 나이도, 지역도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전남 각지에서 열리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는 소수의 관심사였던 이 대회가 이제는 학생, 직장인, 주부, 군인 등 다양한 도민이 참여해 생명 살리기 기술을 겨루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전남에 불어닥친 심폐소생술 붐은 단순히 응급처치 기술의 보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내 눈앞에서 쓰러진 타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용기, 나의 두 손으로 이웃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지금의 열기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 시스템은 더 정교해져야 하고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의원이 발원했던 것처럼 119 생활화를 통해 심폐소생술이 자전거 타기처럼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 감각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

안전은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오직 준비된 행동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남의 어느 교실에서, 어느 마을회관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을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기적의 씨앗’임을 확신한다.

필자 역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남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골든타임을 놓쳐 잃지 않는 ‘생명의 땅’이 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두 손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년들의 선택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 왜 체감되지 않는지를 보여 준다. 숫자상 일자리는 늘었지만, 전공과 직무가 분리된 채 공급되면서 청년에게는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구조다. 취업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청년들은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AI·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교육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론 위주 교육으로는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청년 유출을 다시 보게 만든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수도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머물며 성장할 경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갔다는 의향은 이미 확인됐다.

결국 관건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구조’다. 전공과 직무, 성장 경로가 연결되지 않는 한 청년의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광주 청년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설

‘광주방문의 해’ 관광객 6501만명 왔는데…

올해 광주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650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11만명(6.8%)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시가 올해 운영한 ‘광주방문의 해’가 대박이 난 셈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광주시의 공이 컸다. 지난 3월 ‘광주방문의 해’ 선포 이후 G-페스타 광주 확대 운영,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대축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 행사를 관광 홍보의 기화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또 전남·전북과 함께 ‘호남관광 문화주간’을 운영해 가을권 관광객을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한강 작가와 연계한 ‘소년의 길’ 인문·예술 관광, KIA타이거즈 야구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 등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도 내놓았다.

그 결과, 올 상반기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계기로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크게 확대돼 전일발방245 방문객은 전년 대비 51% (5만 6000명), 국립5·18민주묘지는 15.5% (3만9000명) 증가했다고 한다. 당연히 5월 전체 광주 방문객 수도 19% (108만명) 늘었다.

또 하반기에는 총장축제를 포함한 지(G)-페스타 가을 시즌과 호남관광문화주간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돼 10월 방문객이 29.8% (158만명) 증가해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방문객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숙박 방문자가 지난해보다 251만명 (5.9%) 증가한데 이들의 평균 숙박일수도 함께 늘어 난 것이다.

10월에는 캠핑장·펜션의 소비 비중이 15.2%, 11월에는 내국인 호텔 이용 비용이 10% 늘어나는 등 체류형 업종에서 소비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문제는 교통혼잡, 열차 표 구하기 어려움, 일부 관광·체육시설의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광주시는 이번 방문객 증가가 일회성이 되지 않고 내년, 아니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게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일자리 정책 ‘눈에 띄네’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의 일자리 정책이 눈에 띈다. 올 한 해 경기 둔화와 채용 위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지역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직장적용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선정된 광주경총은 당초 지역 기업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기로 했다.

최고경영자·중간관리자 대상으로는 청년세대 이해·커뮤니케이션, 리더 혁신 등의 교육을, 입사초기 청년 신입직원에게는 조직문화 교육, 직장예절, 팀협업·기본 오피스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들 교육은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실시됐고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켰다. 그 결과 당초 예상인원을 크게 웃도는 5644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연히 사업평가도 좋을 수 밖에 없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목표했던 700명을 훨씬 상회하는 2690여명을 교육했다.

또 북구 지역을 근간으로 둔 미래전략산업의 맞춤형 인재 발굴과 취업 연계를 위해 ‘내일이 행복할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이 분야 유망 기업 10곳을 발굴한데 이어 기업 홍보 영상 제작과 시제품 제작·재료비 지원 등 총 20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년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도 올해 당초 목표치 650명을 훌쩍 넘어 917명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졌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는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도 지금까지 총 250여명에게 고용 지원을 제공하며 이직률 완화와 인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 경총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서도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광주경총이 앞으로도 청년과 중장년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고용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 고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00 임원실 370-7093 총무국 370-7090 사법국 370-7070 광고국 370-708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370-7200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370-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